

韓國開化期の 外人館(2)

A Study on the Foreigners' Residence in Korea

金泰永 / 서울대 건축학과 박사과정 수료

by Kim, Tai-Young

I-06 “타운센드” 住宅

위치/송학동 3가 5번지
연대/
건축규모/구조: 벽돌 1층
연면적:
보존상태/ 화재로 全燒

각국공동거류지내의 송학동과 한국인촌 내동(內洞)과의 경계지점에 위치하였던 타운센드 洋行(Townsend & Co.)은 송학동 3가 5번지 일대에 순한국식 건물들로 집단을 이루고 있었다. 이 일대 초기 토지구획 정리도면상¹⁾에 각국공동주거지 D지구 34, 35, 36호로 대지크기는 각각 30×60M(대지면적: 1800㎡) 정도이었다.²⁾ 원래 鑛山技師이었던 미국인 경영주 타운센드(Walter D. Townsend)는 1884년 5월 인천에 도착하여³⁾ 화약·광산기계류의 판매, 석유대리점·정미업·은행대리점 및 토목사업에 손을 뻗쳐 수십만의 致富를 하였다. 또한 그는 스탠더드 석유회사(Standard Oil Co.)의 公認 都賣商人으로 임명되었고,⁴⁾ 1897년 2월에는 오하이오주 출신 데슬러(David W. Deshler)와 공동으로 동양합동 광업회사를 시작하면서 유력한 인사가 되었다.

일본여성과 결혼한 다운센드가 松月洞의 독일인 “슈르바움” 주택 옆으로 이사한 이후,

일본인가 와바다(川端傳四郎)가 이 주택을 매수하여 거주하였다고 한다.⁵⁾ “타운센드” 주택이 위치하였던 송학동3가 5번지 첫머리에는 아직도 단층 양옥 2동(5번지 8호, 13호)⁶⁾이 있는데, 이 건물이 당시의 것 혹은 그와 유사한 것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다만 문헌상 타운센드주택과 ‘타운센드의 지배인이며, 前海關長이었던 윌리엄 막코넬(William Mcconel)의 주택이 바로 이 위치에 단층 양옥으로 세워졌음을 볼 때, 이 건물 2동이 당시의 건물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한다.

□註□

- 1) A.J. Scredin Sabatin의 實測圖(1888년), 仁川府史 참조
- 2) 개항당시 타운센드양행 소유의 대지주변으로 그들의 사옥, 주택 및 직원용 주택들이 있었다고 한다.
- 3) 한국근대외교사년표
- 4) F.H Harrington 著, 李光麟 譯, 開化期の韓美關係-알렌박사의 활동을 중심으로-, 一潮閣, 1983, p.197.
- 5) 崔聖然, 開港과 洋館歷程, p. 98.
- 6) 송학동3가 5번지 8호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것으로 1936년 신축, 벽돌 1층, 83평, 막코넬주택으로 추정됨], 재조사결과 1989년 초에 화재로 全燒된 뒤, 5번지 13호(1942년 신축, 벽돌 1층, 건평 37평, 타운센드주택으로 추정됨), 그 외에

5번지 2·4·25호에는 해방이전에 세워진 2층 목조주택들이 다수 있다.

I-07 “앨런”博士 別莊

위치/崇峯洞 107번지
연대/1893년경
건축규모/구조: 벽돌 2층
연면적: 61.17평(47.77평 / 13.4평)
보존상태/無(1956년 11월 15일 파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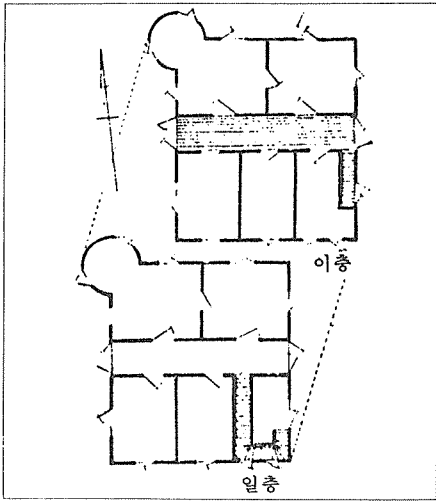
1894년 9월 22일 청년의사이며 장로교 선교사로 중국을 거쳐 한국에 온 앨런(Allen)은 갑신정변 당시 외교교문 뮐렌도르프(P.G. Möllendorf)의 소개로 칼을 맞고 쓰러진 사대당의 거두 閔泳翊을 全治한 이후 점차 신망을 얻게 되었다. 앨런은 의료사업·선교사업 뿐만 아니라 구한말 최후의 주한미국공사로서 여명기 한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하였으며, 많은 저서와 근대문명의 기기(利器)를 도입하는 데에도 일익을 담당하였다. 한성부 中部 貞洞에 위치한 미국공사관(현 정동 10번지 미국 대사관저) 근처 한국의 재래건물에 기거하였던 앨런박사는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한국의 전통적인 기와집을 몹시 매혹적이고 아름답다고 보았으며, 온돌에 대해서도 이우 일본과 중국에 비해 몹시 훌륭한 난방방식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¹⁾



▲ 송학동 3가 5번지 13



▲ 송학동 3가 5번지8 (“막코넬”주택이 위치한 장소, 1989년초 火災로 全燒)



▲ 앨런박사 별장 평면도 (開港과 洋館歷程, p.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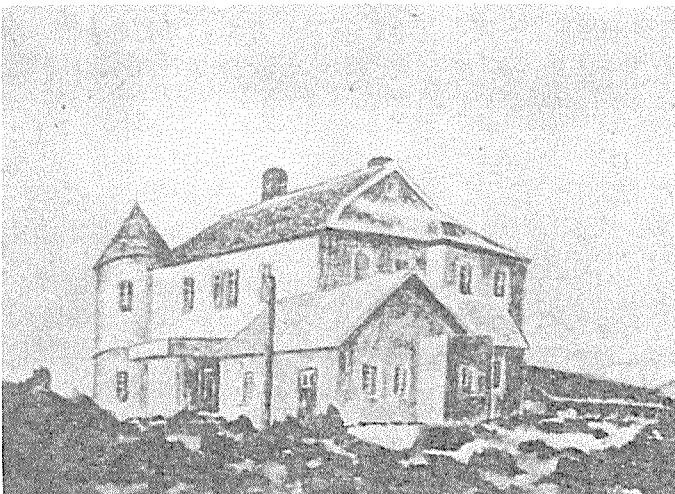
앨런박사가 옹골산일대의 외국인거류지에서 뚝 떨어진 쇠뿔개(牛角峴)를 별장의 대지로 선택하였던 경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당시 외국인들의 공통적 애로사항인 통신과 보급문제를 원활히 처리하고자 이 위치를 선택한 것 같다.

앨런박사의 별장을 보면, 당시 미국 일반주택의 표준형에서 볼 수 있는 식민지풍(Colonial type)주택으로, 중앙에 細長한 홀(Hall)을 만들고 홀의 전후에 출입구를 두어 개방감을 형성하고 있다.²⁾ 북서쪽 모퉁이에 둥근 탑으로 쌓여 올려서 작은 도음이 쓰여졌던 곳은 아마도 18세기 이후 구미주택의 특징으로 나타난 格式의 상징인 接客空間³⁾ 혹은 식당(Dining Alcove)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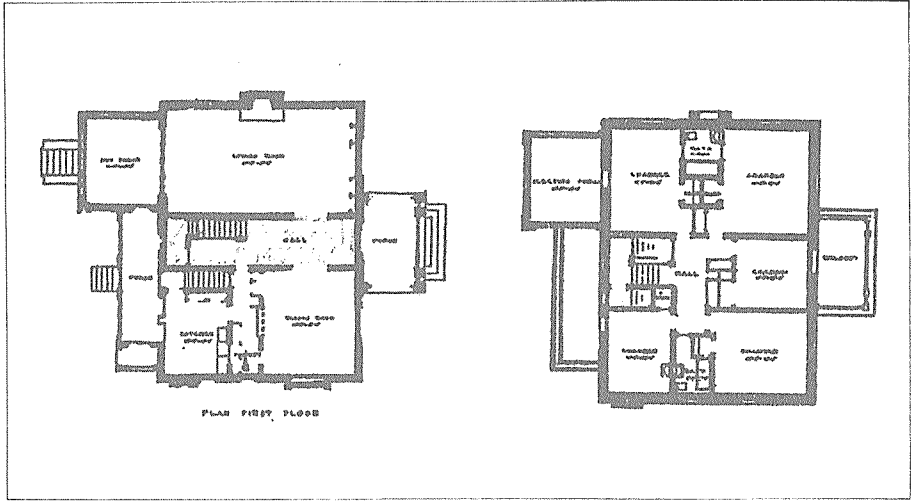
1905년 앨런박사가 이 나라를 떠난 후, 그의 별장이 이완용의 아들李明九 혹은 徐丙義의 별장으로 사용되었던 동안은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가, 일본인 등 여러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점차 風致를 잃기 시작하였다. 이후 학교교사로 이용되다가 1956년 10월 황폐한 구옥을 헐어내고 仁川傳道館이 들어섰다.⁴⁾

□註□

- 1) 앨런박사와 그의 부인 패니여사는 한국의 전통가옥에 몹시 호감을 갖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開化期의 韓美關係, 앞의



▲ 앨런박사 別莊 외관, 崔聖然, p. 109)



▲ 미국의 一般住宅 標準型 (近世住宅, p. 65)

- 책 p.58.
H.N. Allen, 「Things Korean」(申福龍 朝鮮見聞記, 서울, 博英社, 1979, pp.56-57 p.157 참조
2) 前田松韻, 近世住宅, 東京, 吉田工務所出版部, 1940, p.65.
3) 太田博太郎, 住居論, 建築學大係1, 章國社, 1959, p.256.
4) 崔聖然, 앞의 책, pp.118~119.

I-08 “모오르스” 邸宅

위치/송학동2가 18번지 15호
연대/1896년(건축물 관리대상에는 1939년으로 기재되어 있음)
건축규모/구조: 벽돌2층
연면적: 46.2평(23.1평/23.1평)
보존상태/存(6.25 동란시 파괴되었으나, 1954년 復舊 住宅으로 現存)

미국 테네시주에 소재한 샤타누우가(Chattanooga)시 출신의 “제임스 R. 모오르스” (“James R. Morse)는 1896년 3월 29일에 외국인으로서 최초로 京仁線敷設權을 한국정부로 획득한 장본인이다.¹⁾ 모오르스는 인천의 미국상인 “타운센드”의 出資를 얻는 한편, 同國人 土木·鑛山業者인 “콜브란”(Henry Collbran)을 技師長으로 초빙하여 공동으로 착수하였다.

1897년 3월 22일 牛角峴에서 기공식을 거행하였지만, 자금의 수급이 여의치 않아 일본인 실업가와 계약을 맺고서야 1899년 9월 18일에 인천-노량진간의 영업을 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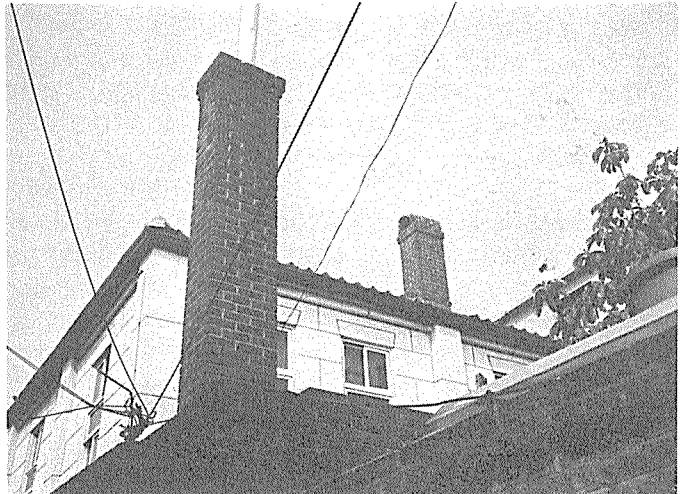
경인선의 개통은 한국개항 이래 역사적인 대발전업에는 틀림없는 사실이였지만, 당시 한창 번성하였던 인천제물포항의 景氣와 商權에는 暗雲을 던져준 계기가 되었다.

“모오르스” 저택은 작고 아담한 벽돌조 2층 양관으로 “타운센드” 양행의 불록인 D 지구 33~36호 획지 바로 서쪽에 인접한 불록의 31~32호(각각 25×60m, 1500㎡)에 걸쳐 있었다. 바로 인접한 뒷쪽 대지(18번지 11호)에는 雲山 “노다지”판의 대본산인 東洋合同鑛業會社(Orient Consolidated mining Co.)를 겸한 미국인 데슬러(D.W. Deshler)저택이 있었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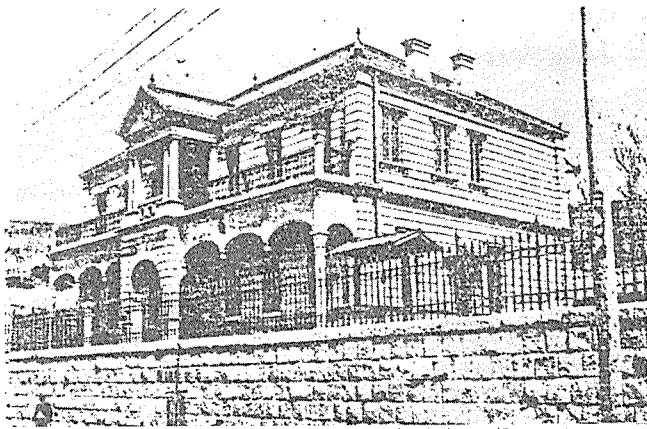
해방전까지 京城日報 仁川支局을 경영하던 일본인 “이마이”(今井省二)가 거주하였고, 6.25 동란의 포화로 소실되어 벽과 굴뚝만 남아 있다가, 1954에 復舊되어 한국의 “간디”라는 애칭을 받았던 民議院 議員 郭尙勛씨가 거주하였으며,³⁾ 현재(1989년) 劉某氏가 소유하고 있다.

□註□

- 1) 奎章閣文書, (奎3179-3181)
- 2) 현재는 인성학교가 위치함.
- 3) 崔聖然, 앞의 책 pp. 120~121.



▲ 송학동 2가 18번지 15호 (“모오르스”주택, 굴뚝의 殘痕이 엿보인다.)



▲ 홈·링거어洋行(仁川開港 二十五年史, 加瀬和三郎, p. 70)

HONGKONG &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PAID UP CAPITAL \$16,000,000
RESERVE FUND 6,600,000
RESERVE LIABILITY OF PROPRIETORS } 10,000,000

HEAD OFFICE—HONGKONG.
Chief Manager—T. JACKSON, Esq.

Branches and Agencies:

London	Calcutta	Foochow	Batavia
Lyons	Singapore	Panpak	Sourabaya
Shanghai	Soigon	Hankow	Tientsin
New York	Shanghai	Amoy	Yokohama
San Francisco	Manila	Tientsin	Hankow
Bombay	Hankow	Hongkong	Peking

Interest allowed on Current Accounts 2% on Daily Balance over \$500.

Money will be received on Fixed Deposit on terms to be ascertained on application.

Credits granted on approved Securities, and every description of Banking and Exchange transacted.

Drafts granted on London and the Chief Commercial places in Europe, India, Australia, America, China, and Japan.

and Circular Notes issued for the use of Travelers.

Holme, Ringer & Co.,
Agents.

Chemulpo 1897

◀ 홈·링거어洋行광고
(Korean Repository
1897년 11월)

I-09 “홈·링거어” 洋行

위치/송학동1가 9번지
연대/1898년 8월
건축규모/구조: 벽돌2층
연면적: 167평
보존상태/無(1961년 1월 1일)

1896년 10월 인천지점을 개설한 “홈·링거어” 洋行(Holme Ringer & Co.)은 그 본점을 일본 “나가사키”(長崎)에 두고 있는 영국계 商社로서, 1898년 8월에 송학동1가 9번지에 새로운 사옥을 건축하였다. 礎石에 쓰여졌던 H.S.B.C.는 香港上海銀行(Hongkong &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인천지점의 영문 첫자를 표시한 것이다.¹⁾

“홈·링거어” 洋行은 한국 有數의 大商館으로 營業·船般·銀行·保險部의 4부서로 나뉘어져 있었다. 영업부는 구미각국의 제조품을 직수입하거나 韓國產貨物의 수출을 맡고 있었으며, 선박부는 港船會社대리점의 업무, 은행부는 香港上海銀行의 대리점 업무, 실험부는 보험회사의 대리점 업무를 맡고 있었다.²⁾

이 건물의 도면은 찾을 수 없고 단지 외관사진만이 남아 있다. 당시의 商館이 위치하였던 각국공동거류지 D지구 11·12구획지(Lot)는 일본영사관 뒷거리 첫모퉁이로, 33.5m×66m크기의 대지에 대지면적이 2227㎡(735평)이어서 비교적 여유있는 공지를 확보하였다.

흰색의 불품있는 벽돌조 2층 양관으로 외벽에 회칠을 하였으며 전면에 반복되는 아이치와 발코니,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박공지붕의 캐노피 등은 우아함과 권위를 동시에 자아내는 영국식 르네상스에 준하는 건물이었다.

한일합방이후 이 건물은 朝鮮每日新聞社 사장이던 “고도오”(後勝連平)의 주택겸 법률사무소이었다가 조선알미늄공업주식회사 사옥으로 이용되었다.³⁾ 1946~7년 경에는 주한미국대사관 公報院 仁川分院, 1951년 5월에는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약칭 文總) 인천지부 회관으로 사용중 海軍水路局의 간청에 의하여 청사로 사용되었다.

□註□

- 1) 崔聖然, 앞의 책, p.98.
- 2) 加瀬和三, 仁川開港二十五年史, 1908, p.70.
- 3) 좀더 치밀한 추적을 필요로 하지만, 인천시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보면 1984년 8월 31일자로 멸실되어 있지만, “홈·링거어” 洋行의 부지일부인 송학동 1가 9번지의 건물내용인축, [1917년 신축, 연와조석반죽 2층 153.18평(76.21/76.96)평, 부속건물 목조와즙 1층건물 12.5평]으로, 건축주는 조선알미늄공업(주)으로 되어 있었다. 현재는 여관과 관광센터가 위치하고 있음.
- 4) 崔聖然, 앞의 책, p. 99.

I-10 濟物浦 俱樂部

위치/송학동1가 7번지
연대/1901년 6월 22일
건축규모/구조: 벽돌2층
연면적: 117.2평(32/85평)
보존상태/存(現, 仁川市立 博物館)

제물포구락부(Chemulpo Club)가 최초로 조직된 것은 1891년 8월이었다. 갑자기 융성하였던 인천제물포항에 몰려드는 외국인들 자체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기에는 구미인 6명, 중국인 4명, 일본인 24명으로 구성되었으나,¹⁾ 官洞에 있었던 목조 단층 구락부에서 신관을 건축하고 이전할 무렵에는 거의 서양인들만의 구락부로 변화하고 말았다.²⁾

건물은 이층이되 응봉산의 비탈을 깎아 뚫고 지은 까닭에 아래층은 창고를 겸한 지하실이고, 윗층은 건물 좌측으로 나있는 외부 돌계단을 올라 진입하게 되어 있어 단층집 같다.³⁾ 각 국조계내 외국인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사교장의 성격에 따라 평면적으로는 단순히 3켜로 나뉘어져 있고, 벽면은 여전히 퇴색한 회칠 마감으로 창위는 페디먼트로 장식되어 있다. 단순한 평면에 비해 지붕형태는 상당히 복잡하다. 이 외국인구락부는 조계제도가 철폐되기 시작한 1913년경 당시 일본제국제향구회회 인천연합회에 이관되어 精芳閣으로 명명되었다가, 인천부청에서 관리하였고 해방후 주한미군의 장교구락부, 대한부인회 인천지부회관(예식장 및 다방등

검용)등으로 사용되다가 1953년 4월1일 인천시립 박물관으로 개관되었다.⁴⁾

□註□

- 1) 青山好惠, 仁川事情, 인천조선신보사, 1892, p.23.
- 2) 崔聖然, 앞의 책 p.136.
- 3) 崔聖然, 같은 책 p.135.
- 4) 崔聖然, 같은 책 p. 136~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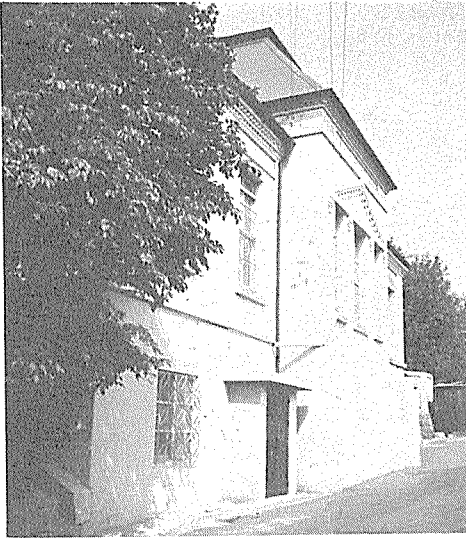
I-11 仁川閣

위치/北城洞 3가 1번지
연대/1905년
건축규모/구조: 석조 층
연면적: 452.98평(지하실 113평, 127.1/107.88/99.8/5.2)
보존상태/無(1950년 9월 동란중 파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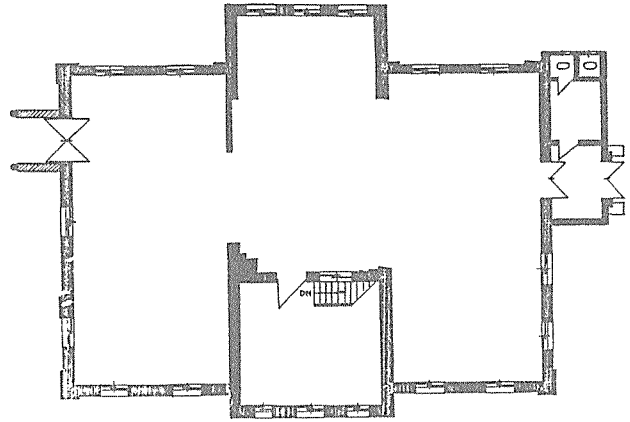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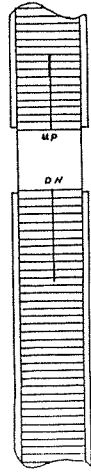
영국인 “제임스 존스톤”(James Johnston)의 별장은 1903년에 건축을 시작하여 1905년에 준공된 그야말로 인천항구의 랜드마크이었다.

인천각에 대해서는 “파울·슈트바움”翁이 미군의 요청으로 그가 몸소 목격한 사실을 기술한 것이 가장 믿을만한 데이터이다. 「스콧틀랜드 태생으로 上海에서 上海 독크工廠을 설립하여 致富한 故 “제임스·존스톤”씨는 서기 1903년(단기 4236년) 그의 집을 짓기 시작하였으나, 1904년과 同 5년에 걸친 소위 러일전쟁중의 노동임금 앙등과 건축자재 구입난으로 해서 1905년말에야 겨우 落成을 보게되었다. 건물은 언덕 앞반위에 굳게 안정되어 있으므로 웬만한 지진쯤에는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믿으며, 사실상 과거 40년간 제물포에서 단지 3차의 微動을 받았으나 손톱만치도 피해는 입지 않았다. 중국인 청부업자 “리·케이·쯔”(Lee Kei Tsu)가 전력을 다하여 훌륭하게 건축하였으므로 앞으로 오랜동안 제물포의 “랜드·마이크”가 될 것이다.

건축설계와 디자인은 上海에서 독일인구락부를 건축한 바 있는 독일인 “로즈케겔”(Rothkegel)이라는 기사이며, 두 건물은 서로 흡사한 바가 많다. 지붕위 붉은 타일기와는 중국 靑島에서 가져왔으며, 전기장치와 램프는 독일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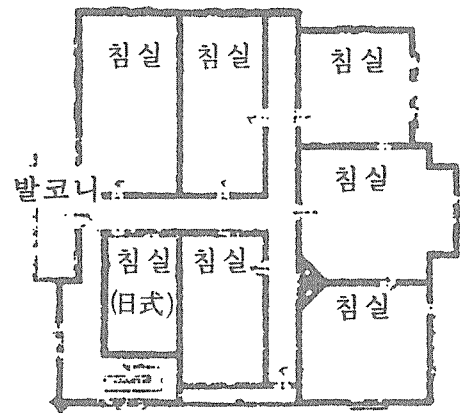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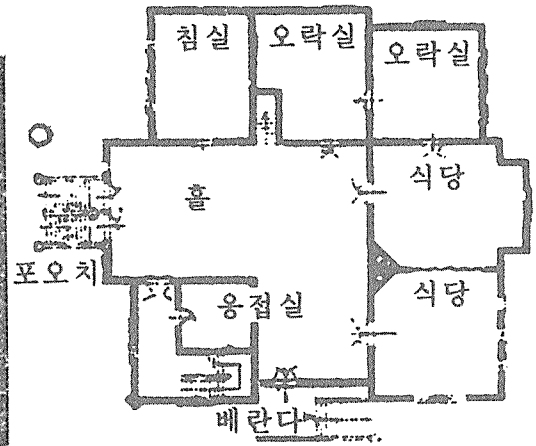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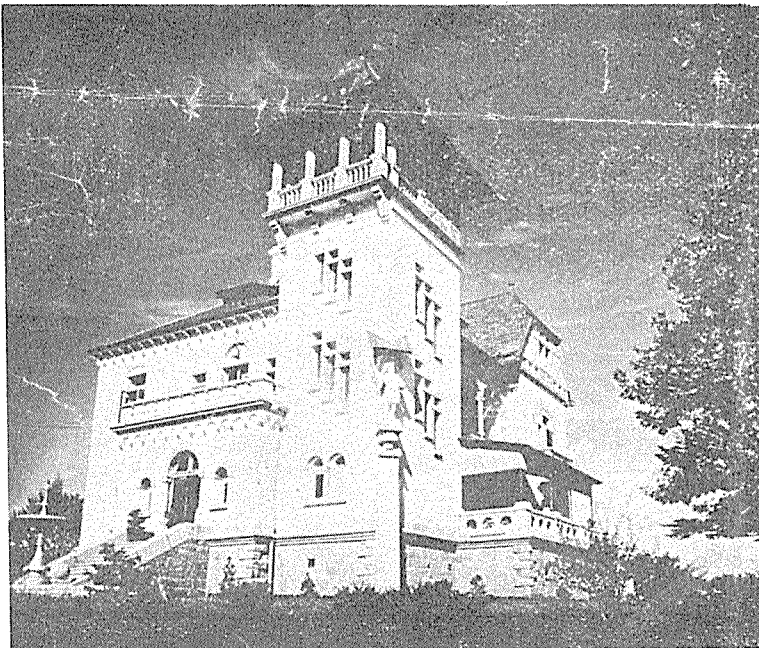
▲ 제물포 구락부 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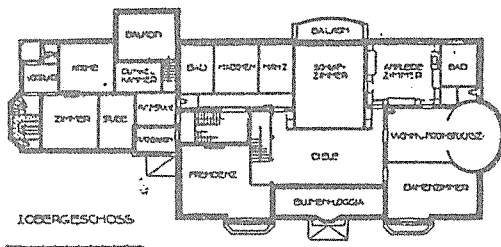
0 1 2 5m

▲ 제물포 구락부 평면도, 李英哲, p.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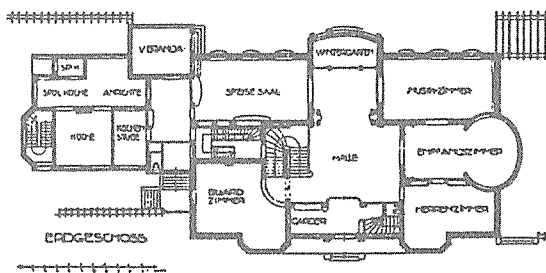
▼ 仁川閣, 京畿地方の名勝史蹟, 朝鮮地方行政學會 京畿道 編纂, 193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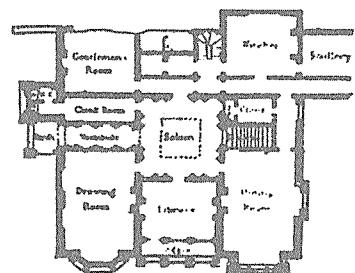
▲ 仁川閣 평면도 (開港과 洋館歷程, p.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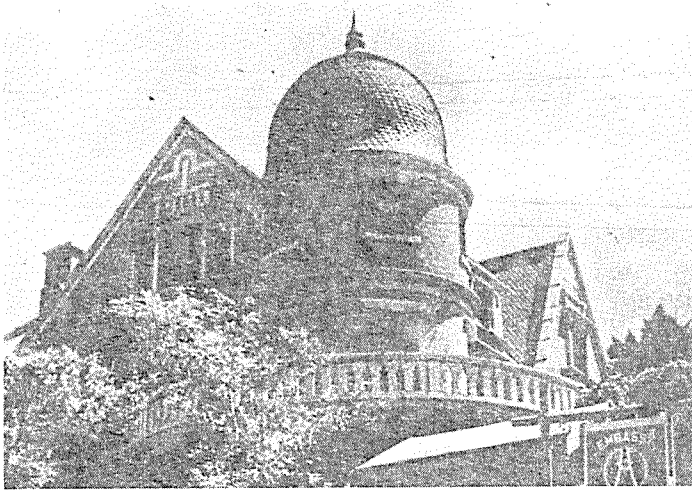
1. OBERGESCHOSS



▲ 18세기 영국주택의 평면구성 방식 (근세주택 p. 44)



▲ 19세기 독일의 주택평면 (근세주택 p. 53)



▲ 오레당 저택, 崔聖然, p. 104



▲ 송학동 2가 16번지(오레당저택이 위치하였던 장소, 3층 R.C조 건물이 허름하게 서 있다.

그리고 全家具는 영국 런던 “메이폴 商社”로부터 구입하였다. 가구등은 그뒤 “존스톤”씨가 제물포 夏期別莊을 포기하였을 때 상해로 옮겨가고 말았다.

골짜기에 있었던 붉은 집에는 發電施設과 우물로부터 옥상 큰 탱크로 물을 올리는 펌프가 있었다. 이 건물은 夏節에 한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듯싶다. 그 까닭은 아무런 난방시설이나 스토오브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 집에 대해서 特筆할 것은 홀번두리의 띠(腰板)와 식당 그리고 계단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木造彫刻들이다. 상해로부터 10명 내지 12명의 彫刻手를 초빙해서 수개월에 걸쳐서 이를 완성하였다.………」¹⁾

영국인 제임스·존스톤의 별장인 인천각은 탑의 높이가 80척이나 되며 인천에서, 전망이 제일 좋은 위치에 서 있었다.²⁾

영국주택이 홀 중앙에 계단을 두고 홀은 客室로 통하는 要路에 불과한 것인데 비해,³⁾ 인천각은 홀과 계단이 분리되어 넓은 홀이 중요한 室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⁴⁾ 독일인(Rothkegel)이 설계하였음을 재확인 할 수 있다.

외관상, 순수하게 구성된 각 부분의 디테일은 엄격한 계산에 의한 듯 교묘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잘 통일되어 있다. 당시에 세워진 대개의 건물이 어디엔가 위장된 구석이 드러나는 데 反하여, 이 인천각은 가장 순수한 유럽식 건축일 뿐 아니라, 그 塔角部에 있는 로코코식 조각과 기타 서정적인 수법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초에 걸쳐 北歐의 한 경향이었던 향토적인 것과 시세션(Secession)이 결합된 작품을 연상케 한다.⁵⁾

半地下室 부분은 러스티케이션(Rustication)으로 하고, 일반벽면은 다듬은 석재로 쌓아 清楚한 감을 줄 뿐더러, 처마돌림과 발코니 난간등의 장식, 각 개구부의 모양과 위치 등은 이 건축을 한층 더 雅緻하게 한다.⁶⁾

1906년 이래로 존스톤의 여름피서용 별장으로 사용되다가, 1919년 상해에서 존스톤이 昨故한 이후 두 딸중 한 사람인

윌터부인(世昌洋行의 前代表社員の 夫人)이 한동안 머물고 있다가, 1차세계대전중에 일본인 히로자와에게 매각처분하였다. 이후 다를 일본인에게 매도되다가 인천 시청이 매수하여 官有財産을 만든 후에 인천을 찾는 저명인사 실업가·관광객들을 위해 고급호텔로 專用되었다.⁷⁾

해방이후 미군의 將校獨身寮(13. Q.Q)로 사용되었다가, 1950년 9월 중순 인천상륙작전시 포화와 공습으로 파괴되었다.

□註□

- 1) 崔聖然, 앞의 책, p.154~155
- 2) 建築雜誌(日本), 1904년 11월호(215호), p.659.
- 3) 前用松韻, 앞의 책, p.44
- 4) 前用松韻, 같은 책, p. 53.
- 5) 尹一柱, 韓國·洋式建築 80年史, p.77
- 6) 尹一柱, 같은 책, p.76.
- 7) 崔聖然, 앞의 책 p.p. 152~153

I-12 吳禮堂 邸宅

위치/송학동 2가 16번지

연대/1909년

건축규모/구조 : 벽돌 3층

면적 : 405평(지하실 101평, 176/128평)

보존상태 : 無(1966년)

원 소유주 吳禮堂(Woo Li Tang)은 중국 외교관 출신의 西班牙語에 능통한 人士로서 오랫동안 仁川海關의 譯官을 지냈으며, 마드리드 소재 중국공사관의 서기관으로 재직 당시 스페인 여자와 결혼하였다.

이 주택은 부인을 위해 지은 것이라 한다.

오레당 부부는 많은 토지를 장만하고,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致富를 누리며 당시 인천에 주재한 외국인들에게 까지도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한다.

오레당저택이 위치한 송학동 2가 16번지는 각국 공동거류 의 D지구 16~17호로 대지크기는 34×58.5~60m(1740m²)이다.

동근 도음을 지닌 인천 유일의 붉은 벽돌집으로, 높은 축대위에 앞이 툇터진 향구를 겨냥고 있으며, 쓸모있고 재치있게 마련된 배란다는 정다움게 보였다¹⁾ 고 한다.

원래 이 집은 1909년에 건축하였으나 준공되자마자 원인불명의 화재로 全燒된 후 前住宅과 똑같은 型으로 재건한 것이다.

오레당씨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未亡人이 일본인 “요시다”(吉田秀次郎)에게 매각하여 해방전까지 내려오다가, 미군의 將校獨身寮, 韓國軍某機關의 占有物로 이용되었다. 현재는 파괴되어 없고 남은 R.C조 3층 건물이 세워져 있다.

□註□

1) 崔聖然, 앞의 책, p.163

開港期 仁川濟物浦港에는 앞에서 언급한 외인관들 이외에 수많은 외인들의 주거용건물이 있었다. 1910년에 이르러서 인천항의 租界地내에 거주한 7790가구중 외인들(특히 일본인)이 반이상의 가구를 차지하고 있었다.

淸館·倭館의 주거용 건물들은 앞에서 설명한 주택형식에 준한 것들로 볼 수 있으며, 洋館들로는 이외에 막코넬주택(Mcco nel, 송학동 3가 5번지 8호, 벽돌 1층), 데실러저택(D.W.Deshler, 송학동 2가 18번지 11호, 벽돌 1층, 日式), 헨켈저택(Hen kel, 송학동 1가 2번지, 1895년 전후하여 신축, 벽돌1층), 해관장택(E. Lapord, 송학동 1번지 헨켈저택 맞은 편, 1896~7년 신축, 벽돌1층), 슈르바움저택(Schribaum, 松月洞 3가 9번지, 1902년 신축)등이 대표적인 외인관들이다.

仁川濟物浦港의 人口表 (()는 戶數)

區分年度	韓國人	日本人	淸國人	其他國人	計
1883	...	382 (75)
1888	...	1,359 (155)
1892	...	2,649 (406)	521 (228)
1897	8,943 (2,360)	3,949 (792)	1,331 (311)	57 (24)	14,280 (3,333)
1900	9,893 (2,274)	4,215 (990)	2,274 (228)	63 (29)	16,445 (3,521)
1905	10,866 (3,479)	13,315 (2,853)	2,665 (311)	88 (33)	26,330 (6,676)
1910	14,820 (3,794)	12,711 (3,446)	2,806 (524)	70 (26)	31,011 (7,790)